

최신 ICT 이슈

IV. 백투더퓨처2에서 예상한 30년 후 미래, 최근 ICT 융합 기술에 의해 실현

- 1989년 개봉했던 영화 백투더퓨처2에서는 30년 후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영화 속 기술들이 ICT 융합 기술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

- ▶ [영화장면 1] 주인공 맥플라이(마이클제이폭스)가 미래에 도착하자마자 브라운 박사가 건네준 미래의 운동화(나이키)를 신었을 때 자동으로 신발이 조여지는 장면



[그림 1] 나이키의 아답트 BB

- ▶ 나이키가 2019년 출시한 아답트 BB(Adapt BB)라는 농구화는 미리 설정한 끈 조임 강도에 따라 발이 신발에 들어가면 이를 인식해 끈을 조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끈 조임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등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보폭, 발의 움직임,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칭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 ▶ [영화장면 2] 맥플라이가 미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에 손잡이가 없었는데, 출입을 위해서는 지문을 인식해야 하는 방식임



<자료> Cnet

- ▶ CES 2019에서 락클리(Lockly)는 열쇠, 비밀번호, 지문인식, 앱, 음성인식 등 5가지 방식으로 문을 열수 있는 시큐어 프로(Secure Pro)를 선보임

- ▶ [영화장면 3] 타임머신카 드로리안을 타고 운전하는 브라운박사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보면

[그림 2] 락클리의 시큐어 프로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김범수 집필위원(baemsu@gmail.com ☎ 010-7230-79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 유튜브

[그림 3] 닛산의 I2V 기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추하건데 차량 내/외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헤드셋으로 보여짐

- ▶ CES 2019에서 닛산(Nissan)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 해주는 I2V(Invisible to Visible) 헤드셋을 공개하였는데, 차 내/외부의 디스플레이 및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인프라 정보들을 이용하여 차량 앞/뒤/옆 상황, 건물들의 뒷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소개됨

- ▶ [영화장면 4] 집안에서 아들이 식사시간에 천정에서 내려오는 나무선반으로부터 채소와 과일을 따먹는 장면

- ▶ 최근 킥스타터에서 소개된 오가든 스마트(OGarden Smart)라는 장비는 원통을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LED를 통해 물과 빛을 통해 가정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정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아래의 서랍에서 씨앗을 발아시킨 후 상단으로 옮겨 심으면 자동으로 과일과 채소가 생산되어 즉시 먹을 수 있는 가정 농장으로 활용 가능함



〈자료〉 킥스타터

[그림 4] 가정 농장 오가든 스마트

- ▶ [영화장면 5] 브라운 박사의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리안이 수직 이착륙하고 날아다니는 장면
- ▶ 이러한 비행 차량을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명명하며, VTOL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 없이도 도심 곳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비행 자가용



[그림 5] 바하나(상우), 볼로콥터(상좌), 벨의 넥서스(하)

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2018년 에어버스(Airbus)는 바하나(Vahana)라는 VTOL를 선보였으며, 볼로콥터(Volocopter) 역시 시제품을 개발하여 두바이 등에서 시험비행을 완료한 가운데, 최근에는 우버에어의 벨(Bell)이 CES 2019를 통해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항공택시 넥서스(Nexus)를 공개함에 따라 조만간 플라잉카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 [1] <https://www.airbus.com/newsroom/press-releases/en/2018/02/vahana-the-self-piloted-vertol-aircraft-from-a-by-airbus-succ.html> - 에어버스 바하나 사례
- [2] <https://www.theverge.com/2019/1/7/18168814/bell-air-taxi-nexus-uber-flying-car-hybrid-ces-2019> - 벨의 넥서스 사례
- [3] <https://www.theverge.com/2019/1/15/18167388/nike-self-lacing-shoes-adapt-bb-smart-bluetooth-app-features-battery-life-price-release-date> - 나이키 어답트 BB 농구화 사례
- [4] <https://www.businessinsider.com/nike-new-self-lacing-sneaker-adapt-bb-2019-1> - 나이키 어답트 BB 농구화 사례
- [5] <https://www.cnet.com/news/there-are-five-ways-to-unlock-the-lockly-secure-pro-smart-lock/> - 시큐어 프로 사례
- [6] <https://www.cnet.com/roadshow/news/nissan-invisible-to-visible-tech-ces-2019/> - 닛산의 I2V 사례
- [7]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ogarden/ogarden-smart> - 오가든 스마트 사례